



성별과 노출 빈도에 따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도의 차이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및 영향력 지각을 중심으로*

이은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unju0204@snu.ac.kr

박준모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sepiroth2@snu.ac.kr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한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집단적, 개인적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 주목,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 및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역할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과 여성 혐오 발언 노출 빈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는 해당 발언의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웹기반 설문 조사를 통해 탐색했다. 응답자들은($N = 323$) 4가지 유형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읽은 뒤 각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 및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관련 규제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 답했다. 연구 결과, 첫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발언이 더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둘째, 발언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여성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다른 여성보다는 일반 성인, 일반 성인보다는 다른 남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방송통신정책연구원(CPRC) 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IITP-2015-H8201-15-1004).

사회적 거리에 따른 제3자 편향 지각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지지는 해당 발언이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 혐오 발언이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해당발언 규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반면,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질 것이라는 가설(desensitization)은 지지되지 않았다.

KEYWORDS 둔감화(desensitization) 가설 • 미디어 규제 • 여성 혐오 발언 • 제3자 효과 • 집단 정체성

1. 문제 제기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상호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일각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갠디(Gandy, 1994)가 예견한바 온라인상에서의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및 차별적 발언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혐오 발언(hate speech)이란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표현을 통칭한다(박용숙, 2014). 혐오 발언이 온라인에 등장한 것은 1984년에 반유대인 단체인 ‘아리안 네이션(Aryan Nation)’이 유대인 암살자 명단을 유즈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UN)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는 혐오 표현을 현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들 중 하나로 꼽

은 바 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김민정, 2014), 미국의 와이젠탈 센터(Wiesenthal Center)가 발간한 2013년도 ‘디지털 상의 테러리즘과 혐오 보고서(Digital Terrorism and Hate Report)’에 따르면, 웹 및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에서 발견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혐오 발언은 일간베스트¹를 필두로 각종 소셜미디어, 포털 댓글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장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형은 여성 혐오 표현이다. 이미 2005년의 ‘된장녀’(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를 시작으로 ‘개똥녀’(공중도덕을 무시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루저녀’(남자 외모를 따지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 ‘김치녀’(한국 여성이 서구권 여성과 비교하여 개념 없음을 통칭하는 말), ‘맘충’(일부 몰지각한 아이 엄마를 비하하는 말)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여성 비하 발언들이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 남성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 간에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수준이었던 데 반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포털 뉴스 댓글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성 혐오 발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조소희, 2015), 여성 혐오 콘텐츠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치녀”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2.7%였고, 최근 1주일 이내에 대중매체 및 일상에서 여성 비하나 혐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1.6%에 달했다.

이처럼 여성 혐오 발언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의 사회적 해악을 우려하여 혐오 발언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맞서 ‘메갈리아’라는 커

1 www.ilbe.com.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일간 베스트 게시물을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출발해서 2011년에 독립적인 유머 사이트가 되었다. 특유의 마초적 성향, 정치색, 지역 및 성별에 대한 비방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이다.

뮤니티를 만들어서 남성 혐오 발언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박혜림, 2015). 하지만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어서, 여성 혐오 커뮤니티가 가지는 폭력성(강정석, 2013; 김민정, 2014; 윤보라, 2013)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분노하는 이유(한윤형, 2013)에 대해 논의하는 데 집중해 왔다. 예컨대 안상욱(2011)은 남성들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는 이유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경제 불황,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 이를 여성 혐오 발언을 통해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해당 현상을 체계적,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여성 혐오 발언은 의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상 집단 구성원(여성)들에게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며,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Leets & Giles, 1997) 명백히 반사회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상충되는 가치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의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문제가 되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에 있어 개인 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85.9%가 여성 혐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드러낸다고 본 반면, 남성은 62.9%만이 이에 동의했다. 또한 82.7%의 여성이 ‘개똥녀’, ‘패륜녀’ 등의 단어가 여성 혐오와 연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8.6%만이 동의해 같은 단어에 대한 인식에도 적지 않은 성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박아란·양정애, 2016). 다른 연구에서도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54.2%)이 여성 혐오 발언에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24.1%만이 공감을 표현함으로써(고은지, 2016) 남녀 간에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을 크게 (a)여성 혐오 발언의 반규범적 속성에 대한 인식(“여성 혐오 발언이 얼마나 반여성적 시각을 드러내는가?”)과 (b)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영향력(“여성 혐오 발언이 얼마나 반여성적 시각을 확산시키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지각, 두 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과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접촉 정도의 효과를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이 성별에 근거하여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규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성별을, 그리고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지속적 노출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노출 정도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개인의 속성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아가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 및 규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적 개념인 ‘제3자 효과(the third-person effect)’ 연구에 기반하여 남녀 간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둔감화 가설(desensitization hypothesis),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개념을 동원해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해당 메시지가 드러내는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지각이나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한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과 사회적 영향력 인식: 성별에 따른 차이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객체화, 타자화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우에노 치즈코, 2012). 이러한 관점에서 가부장제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이 여성 혐오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예컨대 포르노그래피, 카사노바, 창녀와 성녀의 구분 등이 모두 여성 혐오 개념과 관련된다(김수아·허다운, 2014). 유사한 관점에서 애덤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 역시 여성 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 멸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성차별주의(sexism)와 함께 쓰이는 여성 혐오란 단어는 단지 병리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이미 몸에 깊이 밴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McLean & Maalsen, 2013).

레브모어와 누스바움(Levmore & Nussbaum, 2012)은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가 특히 여성의 대상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대상화는 상대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 상대의 감정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누스바움이 제시한 대상화는 “도구적으로 대상을 개념화하는 것, 대상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것, 대상의 활력을 부인하는 것, 대상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 대상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을 매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대상의 감정이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121쪽)으로, 그녀는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발언이 주로 가십과 비방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표현은 주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김수아·허다운, 2014). 첫째는 외모를 소재로 한 비하 발언으로, 특히 비만이나 성형을 여성에 연결시킨 모욕적 표현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오크녀’(오크와 비만 여성을 결합)나 한국 여성이 성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비꼬아서 ‘성과’(성형을

과 괴물을 결합)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성과 여성성을 소재로 비하 발언이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성기 및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욕설, 모욕적 표현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걸레’, ‘김치녀’나 ‘보슬아치’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는 남성들의 돈을 목적으로 섹스나 연애를 미끼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여성, 남성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여성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 셋째로는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혐오 발언이 있는데, 가령 운전 능력 부족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김여사’라고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성적 폭력과 위협을 드러내는 혐오 발언은 강간에 대한 위협, 물리적 폭력을 언급하기도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여성 혐오 발언은 메시지의 내용이 반규범적일 뿐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메시지 수용자들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여타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와 구별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취향, 가치, 신념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idiosyncratic)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반면, 후자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예, 성별, 인종, 국적)에 따라 정의된다(Tajfel, 1978). 이 둘은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체성이 더 현저한가(salient)에 따라 사람들은 본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의(self-categorization)하고 집단 정체성에 의거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향이나 목표 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은 사회적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은 성별에 따라 자신을 여성 혹은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지각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을 집단의 일원으로 분류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내집

단(in-group) 성원과의 유사성, 외집단(out-group)과의 차별성을 더 크게 평가하고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혹은 자존감(self-esteem)을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인 자신의 자존감도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 비호의적인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들은 해당 메시지가 적대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인식함으로써 상징적 위협을 줄이고 본인의 집단적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더 쉽게 발생한다(Perloff, 2015, 710쪽).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에서 폄하 및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이 긍정적 집단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발언의 반여성적 편향을 남성들보다 더 뚜렷하게 인식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시각은 자아 관련성, 혹은 자아 관여도의 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논조(slant)에 대한 시각적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대적 미디어 시각(hostile media perception, HMP)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중립적이라고 판단하는 미디어 메시지조차 본인들의 입장에 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믿는 시각적 편향(perceptual bias)을 지칭한다. 이러한 편향은 매스미디어의 광범한 도달 범위(broad reach) 및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가정(persuasive press inference)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unther, 1998; Gunther & Liebhart, 2006; Perloff, 2015). 특히 해당 이슈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디어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입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람들이 메시지를 자기 방어적으로 처리(defensive processing)하게 되면서 해당 메시지가 본인의 입장에 더 적대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Gunther et al, 2012 ; Lee, 2012).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관여도가 적대적 미디어 지각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거나 적대적 미디어 지각을 증폭시키는 요인임을 보인 바 있다(Choi, Yang, & Jang, 2009; Gunther, Christen, Liebhart, & Chia, 2001). 물론 여성 혐오 발언은 기존의 적대적 미디어 지각 연구에서 주로 다룬 뉴스 기사와는 달리 특정 의견을 가진 개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광범한 대중에게 동시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에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서 논의하는 지각적 편향(대조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의 경우 역시 공격 대상자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메시지에 관여도를 높게 느끼고,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을 더 분명히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가설 1: 여성 혐오 발언에 노출되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발언이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 간 여성 혐오 발언 인식의 차이는 혐오 발언의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뿐 아니라, 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으로 제3자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데이비슨(Davison, 1983)에 의해 명명된 제3자 효과는 첫째, 사람들은 미디어의 설득적 메시지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각한다(지각적 요소). 둘째, 이러한 메시지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은 해당 메시지에 대한 태도나 관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행동적 요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대상으로 제3자 효과를 입증했는데, 제3자 효과는 특히 음란물, 폭력물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내용을 접했을 때 두드러지게 발생하고(Davison, 1983; Gunther & Thorson, 1992; Hoffner et al., 1999; McLeod, Eveland, & Nathanson, 1997),

이는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alwen, 1998; Wu & Koo, 2001).

우선 여성 혐오 발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이를 접하는 사람들이 본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평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전통적 제3자 효과).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비난과 공격의 대상인 여성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는 남성 간에 제3자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의 경우 본인이 속한 내집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여성 혐오 발언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남성에 비해 낮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지 수용자의 기존 태도와 미디어 메시지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에 비해 해당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자신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 역시 낮게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정성은·이원지, 2012)는 이러한 예상을 지지한다. 따라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제3자 효과를 더 크게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메시지 수용자 성별의 주 효과).

한편 지각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제3자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남녀의 지각적 편향을 조사한 결과 남녀 응답자 모두 다른 남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포르노그래피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Lo & Wei, 2002). 연구자들은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인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미디어에의 노출이 필수적이고, 남성들이 여성보다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해석했다. 만일 포르노그래피의 생산자가 주로 남성이고, 여성보다 더 자주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콘텐츠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본다면(Greenberg et al., 1993; Malamuth, 1996), 이는 여성 혐오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여성 혐오 발언의 대부분 남성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남성이 여

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인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각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제3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지각 대상자 성별의 주 효과).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 혐오 발언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추정은 메시지 수용자 본인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내집단 선호 경향이 있다(Tajfel, 2010). 제3자 지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을 위해 본인이 받은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임을 감안한다면(Douglas & Sutton, 2004; Perloff, 2002), 자신이 속한 내집단 성원들의 경우 외집단 성원들에 비해 미디어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 내집단 선호가 메시지 수용자의 동기적(motivational) 요인을 강조한 데 비해, 레이드와 호그(Reid & Hogg, 2005)는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에 입각하여 메시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속 집단의 규범과 부합되는가에 따라 제3자 지각 편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고, 지각 대상자가 외집단이며, 미디어 메시지가 외집단의 규범에 적합할 때(the media are normative for out-group)”(131쪽) 제3자 지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추론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여성들이, 해당 발언이 남성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을 지각 대상으로 할 때 다른 여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 제3자 지각 편향을 더 강하게 보이지만, 남성들은 내집단인 다른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여성 혐오 발언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것(“우리 남자들이 딱히 여자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으로 예상된다.

내집단 선호가 동기적 관점에서, 자기 범주화 이론이 집단 규범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각적 편향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인지적 측면에서도 성별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을 평가함에 있어 지각 대상자의 속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정일권(2006)의 연구에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각 대상자의 속성(해당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 본인과 지각 대상자 간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제3자 효과의 크기를 다르게 추정했지만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지각 대상자의 속성(남성 vs. 여성)을 고려하여 여성 혐오 발언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남성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내집단 선호, 메시지 내용과 내/외집단 규범의 관계, 메시지 수용자의 이슈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은 다른 남성에 대한 영향력 판단에 있어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제3자 효과를 크게 보이지만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메시지 수용자 성별과 제삼자 성별의 상호작용).

연구가설 2: 여성들은 지각 대상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비해 제3자 효과를 크게 보일 것이다. 반면, 남성들은 지각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3자 효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인식과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발언의 규제에 대한 지지라는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 검열 혹은 규제에 대한 태도를 다룬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제3자 지각과 규제 지지 간의 관계를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로 설명하는데(McLeod, Detenber, & Eveland, 2001), 이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세혁, 2009). 즉, 메시지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을 부정적 메시지에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메시지 규제를 지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메시지의 부정성(negativity)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지각을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과 별도로 규제 지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독립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제3자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정의하는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동일한 메시지를 접하더라도 수용자의 속성에 따라 해당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정성은·이원지, 2012)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특정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지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한 태도는 관련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Fishbein & Ajzen, 1975) 메시지의 부정성에 대한 평가(“이 메시지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과는 별개로 해당 메시지에 대한 규제 지지(“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규제해야 마땅하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메시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규제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제3자 지각(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과 본인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이 규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설명 모두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지만, 제3자 효과 관련 기존 연구 13편을 재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Chung & Moon, 2016)를 보면 제3자 지각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0에 가까웠으나 타인에 대한 영향력 지각은 일관되게 규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적으로도 타인과 본인에 모두에 대해 미디어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낮은 제3자 지각), 타인과 본인 모두에 대해 미디어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높은 제3자 지각) 미디어 규제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Lo & Wei, 2002)는 점에서 본인과 타인의 차이에 근거한 제3자 지각보다는 다수의 대중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규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이 더 타당하다(Chung & Moon, 2016). 앞서 인용한 로와 웨이(Lo & Wei, 2002)의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3자 효과 연구에서 타인(others)이라 총칭하던 것을 다른 남성들(other males)과 다른 여성들(other females)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추정하도록 하고 이를 규제 지지와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도 미디어 규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의 성별과 관계없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가 다른 여성보다 다른 남성들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지하였고,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남성들이 가지게 될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미디어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남성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이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지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연구가설 3a-b: 여성 혐오 발언이 (a) 부정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b) 타인(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를 지지할 것이다.

4. 여성 혐오 발언 노출 빈도에 따른 메시지 인식과 규제 지지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 정체성 외에 평소 여성 혐오 발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관점 및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나아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둔감화(desensitization)란 특정 미디어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초기에는 흥분(arousal)을 일으켰던

자극에 점차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폭력물(Hoffner et al., 1999)이나 포르노그래피(Gunther, 1995) 등 부정적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TV 폭력물을 많이 접한 중시청자들은 TV 폭력물을 접했을 때 정서적 흥분(sentiment arousal)을 적게 경험했고, 해당 메시지의 부정적 영향을 낮게 평가했으며, TV 폭력물 규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Hoffner et al., 1999).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둔감화 가설로 해석했는데, 이미 폭력물을 많이 시청한 사람들은 폭력적 장면에 대해 둔감해져서 폭력물을 본 후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지 않는 반면, 평소에 폭력물을 접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TV에서 폭력물을 시청했을 때 폭력적인 장면을 더욱 생생히 기억하고 다른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폭력물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둔감화 효과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도 발견되었는데, 포르노그래피에 적게 노출된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이 우려하고(Fisher & Grenier, 1994) 해당 미디어 규제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Gunther, 1995). 자살 보도(김인숙, 2009)나 악성 댓글(유홍식, 2010)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역시 유사 미디어 메시지에 접한 경험이 적을수록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평소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에 익숙해져서(habituation) 특정 발언을 접했을 때 그 유해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을 더욱 생생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한 규제에 동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될 경우, 해당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계발 효과 이론(cultivation theory)에 따르면, 텔레비전 중시청자들이 경시청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묘사하는 세계를 더욱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계발 효과의 휴리스틱 처리 모형(the heuristic processing model

of cultivation effects)을 주장한 슈럼(Shrum, 2004, 2009)은 이러한 결과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accessible) 현상을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prevalent)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형의 핵심 주장은 첫째, TV를 시청하면 TV에서 자주 묘사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억에 저장되는데 TV 시청이 증가할수록 이런 사례들은 더 떠올리기가 쉬워진다. 둘째, 특정 사건의 발생 빈도나 확률 등의 판단을 함에 있어 사람들은 주로 관련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availability)와 같은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하기 쉬운 사례들일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Shrum, 2004, p. 511). 예컨대 최근에 폭력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폭력물을 더 자주 접할수록 폭력적인 사건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이는 현실에서의 폭력 발생 빈도를 과대 추정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프라이스와 투스베리(Price & Tewksbury, 1997) 역시 미디어의 프라이밍 효과를 논의하면서 특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와 연관된 개념들이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 일상적으로 반복될 경우 관련 개념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되는 것(temporary accessibility)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활성화될(chronic accessibility)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평소 여성 혐오 발언에 많이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여성 혐오 발언을 접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전에 보았던 비슷한 발언들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고(accessible), 유사한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더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prevalent) 생각할 수 있다.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이 미디어 효과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성 혐오 발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을 막기 위해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하면 둔감화(desensitization) 가설은 반복된 노출이 특정 미디어 메시지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민감성을 저하시켜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는 주장(즉, 빈번한 노출- 메시지 부정성 지각 약화- 규제 반대)인 반면, 계발 효과의 휴리스틱 처리 모형과 프라이

명 효과에 따르면 반복된 노출이 유사 메시지의 실제 발생 빈도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따라서 규제를 찬성하게 만든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즉, 빈번한 노출- 메시지 영향력 과대평가- 규제 지지). 이처럼 평소 메시지 노출 빈도가 해당 메시지의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다만, 그 대상이 포르노그래피이든 폭력물이든 간에, 평소 노출이 본인의 선호를 반영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해당 메시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본인이 선호하는 메시지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출량과는 별도로 '의도적 노출량'을 별도로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디어 노출과 특정 콘텐츠에 대한 선호의 개념적 혼동(confound)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a-b: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평소 노출정도에 따라 (a) 특정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인 시각 및 (b)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연구 방법

전술한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의 20~40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웹기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단위 응답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서베이 회사에 의뢰하여 이메일로 웹사이트 주소를 공지하고, 연령, 성별 할당이 채워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323명(남: 161명, 여: 162명)이 참여하였는데 평균 연령은 33.4세($SD = 8.63$; 20대: 38%, 30대: 31%, 40대: 31%)였고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적립금이 지급되었다.

1) 설문 구성

응답자들이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을 측정한 뒤, 총 4가지 유형의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할 경우 해당 발언 고유의 특수한 속성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case-category confounding),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여성 혐오 발언은 2014년 여성단체연합에서 발간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온 주요 사례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 형태로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발언 유형 1>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발언, <발언 유형 2>는 연애관 및 여성성에 대한 발언, <발언 유형 3>은 여성의 능력에 대한 발언, <발언 유형 4>는 물리적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구성했다.² 자극물 제시 순서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4가지 여성 혐오 발언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이 얼마나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지, 본인과 타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한 뒤, 인터넷 상에서의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에 응답했다.

2 제시한 여성 혐오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발언 유형 1> “예쁜 애가 예쁜 척하면 흐트하고 못생긴 애가 예쁜 척하면 웃긴데 성기가 예쁜 척하면 쟈 진짜 자기가 예쁜 줄 착각하는 거 같아서 그냥 존나 빠침;; 성괴 주제에-”, <발언 유형 2> “데이트 비용 반반 안 내는 여자 김치녀 맞죠? 여자 분들이 그러셨잔아요. 요즘은 다들 반반하고 누가 더치페이 안 하나구요. 자기들은 반반, 아니 남자보다 더 많이 내며 다들 자기 주변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데이트 비용 반반 안 내는 여자는 김치녀 맞죠? 그런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까지 욕 먹이는 김치녀 맞죠?”, <발언 유형 3> “한국 여성의 단점을 말해줄까? ‘자립심’이 없다는 거다. 한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 살면서 받기만 할 줄 알지 정작 베풀 줄 모르는 종족이 한국 여성이다. 사회생활 해 본 사람이면 알 거다. 한국 여성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맨날 회사에서 카톡질이나 하다가 여자 저차 힘든 일 있으면 특하면 운다. 그게 사회인이나? 애다 ‘애’. 또 결혼하면 내조를 잘하는 것도 아님. 드라마와 현실도 구분 못해서 눈만 높음.”, <발언 유형 4> “성매매 금지, 음란물 금지, 불경기로 연애, 결혼 어려움. 결국 남은 건 강간○○. 저런 쓰레기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삼일에 한 번씩 패 줘야 한다.”

2) 주요변인의 측정

여성 혐오 발언 접촉 정도는 유홍식(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전체 접촉 경험과 의도적 접촉을 모두 측정하였다. 전체 접촉 경험은 “귀하께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얼마나 자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접하셨습니다?”라는 질문($M = 4.40, SD = 1.66$)으로, 의도적 접촉 경험은 “귀하께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서 여성비하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으로($M = 2.26, SD = 1.40$) 측정했다(1: 전혀 접한 적이 없다, 7: 자주 접했다).

여성 혐오 발언에 드러난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은 포르노에 대한 태도(Lo & Wei, 2002) 및 온라인 루머에 대한 태도(이수민, 2013)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각각의 발언에 대해 “위의 게시물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를 7점 척도(1: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 7: 매우 부정적이다)로 측정했다(발언 유형 1: $M = 4.92, SD = 1.72$; 발언 유형 2: $M = 5.23, SD = 1.94$; 발언 유형 3: $M = 4.99, SD = 1.85$; 발언 유형 4: $M = 5.47, SD = 1.72$).

여성 혐오 발언이 본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 게시물은 나의 여성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게시물을 보고나서 내가 여성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 같다” 2개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고(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이들 응답의 평균값을 구해 사용했다(발언 유형 1: $\alpha = .69, M = 3.11, SD = 1.52$; 발언 유형 2: $\alpha = .77, M = 3.25, SD = 1.63$; 발언 유형 3: $\alpha = .83, M = 3.18, SD = 1.60$; 발언 유형 4: $\alpha = .81, M = 3.35, SD = 1.53$).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타인의 유형을 ① 다른 사람들, ② 다른 남성들, ③ 다른 여성들의 3가지로 구분한 뒤, 이 중 한 질문에만 답하게 했는데 이는 다른 남성, 다른 여성,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물어볼 경우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집단 간 비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표 1-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사람'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8$)

변인	$M(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7 (1.46)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28 (1.13)	-.33**		
3.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90 (1.25)	-.06	.68**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85 (1.76)	.39**	.20*	.38**

표 1-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남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9$)

변인	$M(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4 (1.55)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36 (1.17)	-.20*		
3. 다른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4.30 (1.32)	.17	.58**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84 (1.80)	.37**	.09	.45**

표 1-3.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계수: '다른 여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n=106$)

변인	$M(SD)$	1	2	3
1.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5.15 (1.57)			
2.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02 (1.35)	-.42**		
3. 다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3.30 (1.37)	-.26**	.82**	
4.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4.75 (1.71)	.29**	.08	.09

* $p < .05$, ** $p < .01$, *** $p < .001$

로, 각각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이 게시물은 다른 사람/다른 남성/다른 여성들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다른 남성/다른 여성들이 이 게시물을 보고 여성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 같다”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한 뒤, 평균을 구해 여성 혐오 발언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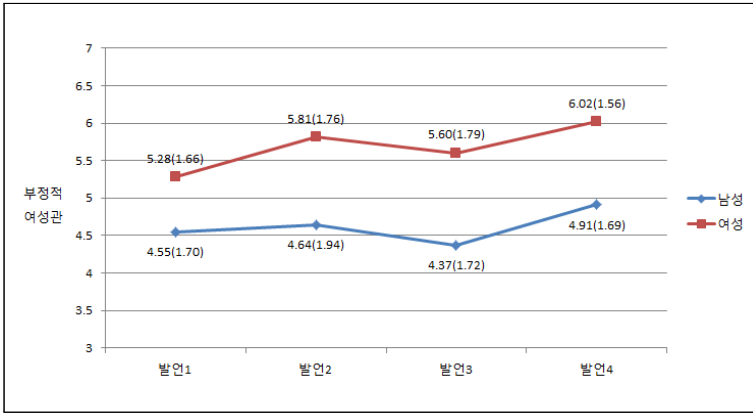
한 지각 점수로 사용했다(발언 1: $\alpha = .74, M = 3.83, SD = 1.47$; 발언 2: $\alpha = .84, M = 4.06, SD = 1.60$; 발언 3: $\alpha = .83, M = 3.93, SD = 1.59$; 발언 4: $\alpha = .81, M = 3.53, SD = 1.70$).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지지는 기존 악성 댓글 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항목(유홍식, 2010)을 수정하여,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혐오 발언 작성자를 처벌해야 한다”, “여성 혐오 발언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고(1: 적극 반대, 7: 적극 찬성), 응답의 평균값을 구해 사용하였다($\alpha = .91, M = 4.82, SD = 1.75$).

6. 연구 결과

〈연구가설 1〉은 동일한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부정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위해 2(성별: 남성 vs. 여성) × 4(발언 유형: 유형 1 vs. 유형 2 vs. 유형 3 vs. 유형 4) 혼합 설계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달라졌는데, $F(1, 321) = 44.70, p < .001$, 부분에타제곱 = .12,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여성 혐오 발언이 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성별과 발언 유형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F(3, 963) = 3.18, p = .02$, 부분에타제곱 = .01, 4가지 발언 유형 중에서 여성의 외모, 특히 성형수술을 한 여성을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 유형 1〉에 대해 남녀 간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발언 유형 1: $t = 3.91, p < .001$; 발언 유형 2: $t = 5.70, p < .001$; 발언 유형 3: $t = 6.29, p < .001$; 발언 유형 4: $t = 6.14, p < .001$, 〈그림 2〉 참조). 종합하면, 발언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해당 발언의 여성관에 대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³

그림 1. 성별과 발언 유형에 따른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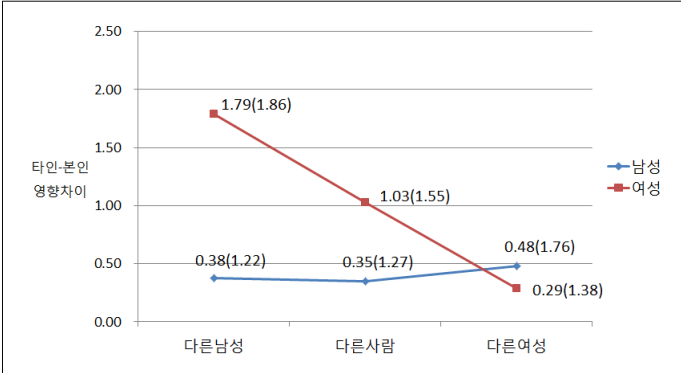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표준 편차

〈연구가설 2〉는 여성의 경우 다른 남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할 경우 다른 여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비해 제3자 효과를 크게 보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점수를 뺀 값(제3자 지각)을 구한 뒤, 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별: 남성 vs. 여성) × 3(타인 유형: 다른 사람 vs. 다른 남성 vs. 다른 여성) × 4(발언 유형: 유형 1 vs. 유형 2 vs. 유형 3 vs. 유형 4) 혼합 설계

3 성별과 발언 유형간 상호작용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발언 유형에 따라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지각이 달라졌다, $F(3, 480) = 5.83, p = .001$, 부분 에타제곱 = .04 (남성), $F(3, 483) = 13.92, p < .001$, 부분에타제곱 = .08 (여성). 남성의 경우에는 발언 1과 4($p = .008$), 발언 2와 3($p = .02$), 발언 2와 4($p = .04$), 그리고 발언 3과 4($p < .001$)의 차이가 유의했다. 여성은 발언 1과 2($p < .001$), 발언 1과 3($p = .02$), 발언 1과 4($p < .001$), 그리고 발언 3과 4($p < .001$)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 외모에 대한 비하(발언 1)이나 능력에 대한 비하(발언 3)은 직접적 폭력 암시(발언 4)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 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특히 외모(성형), 남성의 경우는 능력에 대한 폄하를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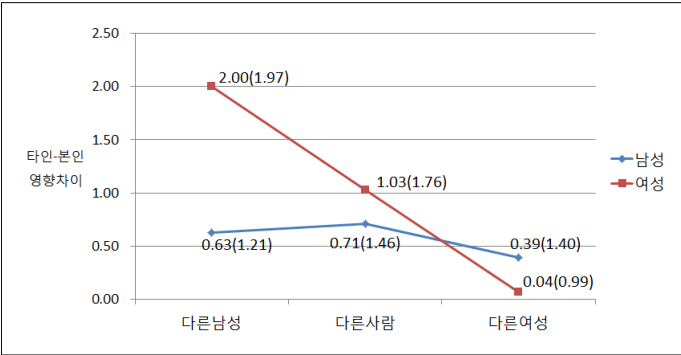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타인 유형이 제3자 지각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그림 2-1. 발언 유형 1



$F = 7.44,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05$

그림 2-2. 발언 유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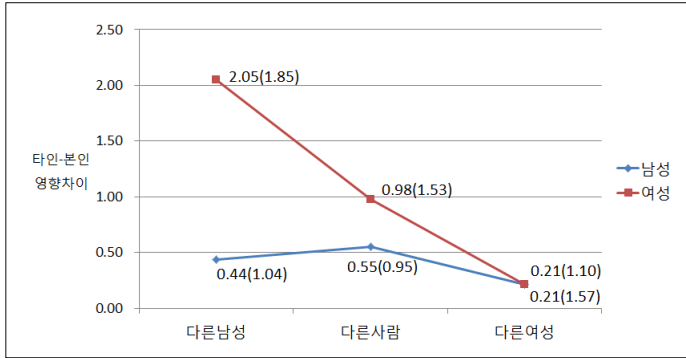


$F = 9.03,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05$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개체 내 요인인 발언 유형을 포함한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했으므로, $F(6, 951) = 4.20,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03$, 각 발언 유형에 대해, 2×3 (성별 \times 타인 유형)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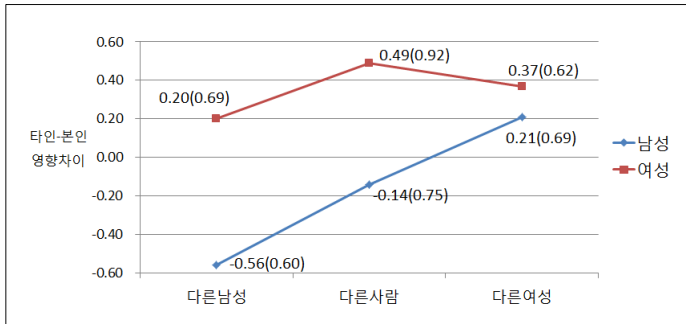
먼저 발언 유형에 관계없이 성별과 타인 유형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그림 2-3. 발언 유형 3



$F = 9.83,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06$

그림 2-4. 발언 유형 4



$F = 3.09, p = .047, \text{부분에타제곱} = .02$

용이 나타났는데, 발언 유형 1, 2, 3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2-1〉부터 〈그림 2-3〉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은 타인의 성별에 따라 다른 남성, 다른 사람, 다른 여성 순으로 제3자 지각을 보이는 정도가 유의하게 달라진 반면, $F = 11.85,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13$ (발언 유형 1); $F = 19.77,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20$ (발언 유형 2), $F = 20.10, p < .001, \text{부분에타제곱} = .20$ (발언 유형 3), 남성은 지각 대상

표 2.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여성 혐오 발언 규제 지지					
	다른 사람($n = 108$)		다른 남성($n = 109$)		다른 여성($n = 106$)	
	1	2	1	2	1	2
성별	-.56***	-.40***	-.60***	-.42***	-.59***	-.53***
여성 혐오 발언 의도적 접촉	-.18*	-.17*	-.09	-.02	.03	.04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17*	.16	.11	-.02	.06	.04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지각		.18		.24*		.10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29**		.17*		.17
R^2	.39***	.47***	.36***	.42***	.35***	.38***
R^2 변화량		.08***		.06**		.03

* $p < .05$, ** $p < .01$, *** $p < .001$.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성별: 여성 = 0, 남성 = 1

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든 $F_s < 1.06$, $p_s > .35$. 하지만 가장 극단적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발언 유형 4> (“성매매 금지, 음란물 금지, 불경기로 연애, 결혼 어려움. 결국 남은 건 강간○○. 저런 쓰레기들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삼 일에 한 번씩 패 줘야 한다”)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그림 2-4> 참조). 남성들은 타인 유형에 따라 제3자 지각의 크기가 달라져서($F = 3.55$, $p = .03$, 부분에타제곱 = .04), 특히 다른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p = .01$)이나 다른 남성들($p = .053$)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했으나, 여성 응답자들은 지각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 = 2.03$, $p = .13$, 부분에타제곱 = .03). 종합하면, 지각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3자 지각의 차이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발언 유형 4>를 제외하고 모두 지지되

었다.⁴

〈연구가설 3a-b〉는 여성 혐오 발언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3a), 타인,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3b) 여성 혐오 발언 규제를 지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타인 유형별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규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변인들(성별, 여성 혐오 발언 의도적 접촉 경험,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투입한 뒤, 다음 단계에서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지각 및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각 변인을 투입했다(〈표 2〉 참조). 먼저, 타인 유형이 ‘다른 사람’일 때, 1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혐오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변인과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인식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가설과 관련, 메시지 지각이 부정적일수록(〈연구가설 3a〉),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연구가설 3b〉)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후자는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했다($p = .09$).

다음으로 타인 유형이 ‘다른 남성’일 때에는 성별과 더불어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규제 지

4 한편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 타인 유형별 각 집단에 대해 발언 유형별로 단일집단 t -검증을 실시,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해 제3자 지각이 존재하는가(즉, 타인이 본인보다 영향을 더 받는다고 지각하는가)를 확인했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발언 유형에 대해 다른 남성($2.14 < b < 7.54, p < .04$), 다른 사람($3.89 < b < 4.82, p < .001$)들이 본인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지만,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에서는 발언 유형 4($t = 4.34, p < .001$)를 제외하고는 제3자 지각을 보이지 않았다, $b < 1.53, p > .13$. 한편 남성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3자 효과의 크기가 여성에 비해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지만(다른 남성, 발언 유형 4, $p = .50$; 다른 사람, 발언 유형 4, $p = .19$; 다른 여성, 발언 유형 3, $p = .34$), 대체로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정했다.

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메시지가 부정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메시지가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제3자가 ‘다른 여성’일 때에는 성별이 규제 지지를 예측하는 유일한 변인이었는데,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제시된 여성 혐오 발언이 부정적 여성관을 보인다고 인식할수록 규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p = .08$). 종합하면,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연구가설 3a〉), 특히 다른 남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여성 혐오 발언 규제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구가설 3b〉는 지지되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인에서 제외한 뒤, 타인에 미치는 영향 대신 제3자 지각(타인영향력-본인영향력)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세 집단 모두에서 규제 지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모든 $t_s < 1.39$, $p_s > .17$), 제3자 지각이 미디어 규제에 대한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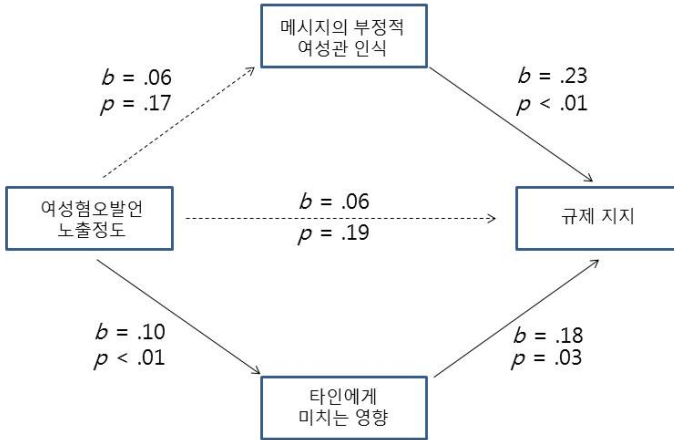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1a-b〉는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에 드러난 여성관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성 혐오 발언 노출 정도를 독립변인, 규제에 대한 지지도를 종속변인,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 및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두 개의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 모형을 프로세스 기법(Hayes, 2013)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 참조). 이때 성별은 앞서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도적 노출은 해당 발언에 대한 선호가 개입된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어진 추정함에 있어 사람마다 척도를 해석, 활용하는 기준(response anchor)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통제변인으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둔감화 가설에

서 예측한 것과 달리, 노출 정도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태도에도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여성 혐오 발언에 평소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발언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인식했고, 이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지지도를 높였다(〈그림 3〉 참조). 즉, 평소 여성 혐오 발언 노출 정도는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을 매개로 규제에 대한 태도에 간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 1000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LL: .0019$, $UL: .0454$). 한편 노출 정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b = .06$, $t = 1.31$, $p = .19$),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노출은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는 경우에만 규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분석을 타인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노출 정도는 여성 혐오 발언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t < 1.48$, $ps > .14$), 규제에 대한 태도에도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t < 1.18$, $ps > .24$) 둔감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로 한 접촉 빈도의 간접 효과는 ‘다른 남성’을 지각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4$, 1000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LL: .0016$, $UL: .1017$). 즉,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되면 다른 남성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b = .12$, $t = 2.32$, $p = .02$), 이는 규제에 대한 호의적 태도도 이어졌다($b = .32$, $t = 2.01$, $p = .047$).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출 정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3$, $t = .35$, $p = .73$).

이에 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할 경우, 평소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높게 추정하긴 했으나($b = .13$, $t = 2.23$, $p = .03$),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판단했다고 해서 규제를 더 지지하지는 않았다($b = .24$, $t = 1.56$, $p = .12$). 한편 ‘다른 여성’을 비교 대상으로 한 집단의

그림 3. 여성 혐오 발언 노출정도가 규제 지지에 미치는 간접 효과($N = 323$)



경우, 여성 혐오 발언을 자주 접했다고 해서 특정 발언을 접했을 때 다른 여성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 추정하지 않았고($b = .05, t = 1.05, p = .29$), 다른 여성에 대한 영향력 지각이 규제에 대한 지지를 높이지도 않았다($b = .10, t = .58, p = .56$).

7.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 해당 발언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정도에 개인적, 집단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차이를 기존의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이론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이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 메시지 자체의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해당 메시지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자의 성

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의 논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연구가설 1〉),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및 타인 유형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연구가설 2〉) 검증했다. 나아가 메시지의 부정성에 대한 판단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행동적 측면에서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연구가설 3a-b〉),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어떤 인지적 경로를 거쳐 규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했다(〈연구문제 1a-b〉).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과 적대적 미디어 지각에 근거하여 예측한 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혐오 발언이 드러내는 반여성적 시각을 더 분명하게 인식했고,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발언 유형에 따른 차이로, 성형수술과 관련된 혐오 발언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본인과 무관한, ‘일부’(성형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해당 메시지에 대해 거부반응을 덜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적대적 미디어 지각 연구에서 주장하듯(Gunther et al., 2006; Lee, 2012) 미디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염려 때문에 편향적(적대적) 지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과 메시지의 반여성적 시각에 대한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거나(‘다른 사람’에 대해 응답한 집단: $r = -.06, p = .54$)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다른 여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 $r = -.26, p = .007$)가 나타났다. 해당 메시지가 반여성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여성’들이 그다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사실은,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여성들의 반작용, 즉 일종의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남성’에 대해 응답한 집단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는데($r = .17, p = .08$), 종합하면 적대적 미디어 지각 관련 논의를 집단 정체성 관점에서 심화시킬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 지각과 규제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제3자 효과에 주목했다. 먼저 제3자 지각과 관련, 발언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 대체로 ‘다른 남성’에 대해 제3자 효과를 가장 크게 보였고, 내집단이자 해당 메시지의 공격 대상인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는 했을 때는 제3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하게 특징짓는 메시지의 경우, 집단 정체성이 제3자 효과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확인한 것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고”(남녀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 혐오 메시지의 본질적 속성), “지각 대상자가 외집단이며”(남성), “미디어 메시지가 외집단에 의해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장려함), 제3자 지각이 증폭된다고 설명하는 자기 범주화 이론의 관점(Reid & Hogg, 2005)을 지지하는 동시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메시지의 영향력을 추정함에 있어 지각 대상자의 속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정일권, 2006).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이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들어 비판하였듯(Lo & Wei, 2002; Chung & Moon, 2016), 제3자 지각(타인과 본인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은 규제에 대한 태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차원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발언 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과 타인 유형의 상호작용이 달리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언 유형을 정의함에 있어 특정한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메시지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흔히 인터넷에서 접하는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여성 혐오 발언 일반에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발언 유형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제3자

지각과 관련 독특한 결과를 보인 (발언 유형 4)의 경우, 노골적으로 성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발언 유형들과 구분되지만, 메시지의 반여성성에 대한 지각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경우에도 결과는 거의 달라 지지 않았다. 이는 메시지의 반여성적 성격 혹은 극단성(extremity)으로 치환되지 않는 다른 메시지의 속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여성 혐오 발언을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다 차원적으로 분석, 유형화한 뒤 각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것이다.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는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른 남성’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각에 따라 달라졌다. 반면, ‘다른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규제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이 여성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여 행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다른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 사실 지금까지 제3자 효과 연구에서는 ‘제3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디어의 ‘영향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혐오 메시지의 부정적 영향은 메시지 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자존감 상실, 외집단(이성)에 대한 적대적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크기 뿐 아니라 영향력의 구체적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영향력 지각은 규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남성에 대한 영향력 지각은 규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관계를 보인 것은 어쩌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내적, 심리적 수준에서 발생하지만(자존감 상실),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평소 여성 혐오 발언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응답자들은 해당 발언이 타인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정했고, 이는 발언 규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폭력물(Hoffner et al., 1999), 포르노

그래피(Gunther, 1995), 자살 보도(김인숙, 2009), 악성 댓글(유홍식, 2010) 등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자극에 둔감해져서(desensitization) 메시지의 부정성을 낮게 평가한다(“더한 것도 많이 봤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고 주장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평소 노출 경험이 여성 혐오 발언의 반여성성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혐오 발언에 자주 노출된다고 해서 실제로 메시지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으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접촉 경험을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노출 빈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접촉 경험의 효과를 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재검증해 볼 것이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여성 혐오 발언의 다양한 유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남성 위주 커뮤니티 및 익명 게시판에서는 훨씬 폭력적이고 욕설을 담은 발언이 많으나 연구 윤리상 발언 수위를 실험에 알맞게 순화시켜야 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만화, 사진, 동영상 등과 결합된 형태의 여성 혐오 발언들, 유머로 포장된 여성 혐오 발언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감각 매체(modality) 및 감정 요소와 결합된 여성 혐오 발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들로 성별, 메시지의 부정적 여성관 인식,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이슈라는 점에서 관련 변인들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정치적 성향이나 이슈 관여도 등도 여성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은 타인의 유형에 따라 제3자 지각의 크기가 달라지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남성 수용자들의 내집단 편향의 작동 결과 인지 아니면 관여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두 요인 모두의 효과 인지를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지각 대상자와 메시지의 관계가 분명할 경우 수용자의 미디어 효과 예상은 동기적 요소보다 인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정일권, 2006, 388쪽) 점을 감안 하면 관여도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는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개인 수준의 관여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여성 혐오 발언의 직접적 공격 대상인 여성들이 남성보다 해당 발언에 대해 높은 관여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단 정체성의 강도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관여도를 별도로 측정함으로써 제3자 효과를 증폭 혹은 억제하는 수용자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체적 맥락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이 메시지 논조 및 그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였으나, 해당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를 보다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메시지의 대중적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Schweisberger, Billinson, & Chock, 2014), 해당 메시지를 뉴스 웹사이트에 달린 댓글로 제시하는 경우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제시하는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을 조작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메시지 내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3자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만하다.

특정 집단을 공격,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혐오 발언에 대한 광범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혐오 발언 규제

는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 및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는데(박용숙, 2014), 구체적으로 ‘무엇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정의함에 있어 혐오 발언의 규제 대상 및 수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구체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동일한 혐오 발언을 접하더라도 본인의 집단 정체성 및 노출 경험에 따라 해당 메시지의 논조나 본인 및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해당 메시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혐오 발언의 법적 규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전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집단 차별적 표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논의와 함께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 여성 혐오 발언의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석 (2013).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학/과학』, 75호, 273~302.
- 고은지 (2016, 3, 13). 불만 쌓인 남성들... 과반이 여성비하 표현에 공감. <연합 뉴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29300005.HTML?input=1195m>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권 2호, 131~163.
- 김수아·허다운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4-1-05).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인숙 (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과학연구』, 9권 3호, 344~367.
- 박아란·양정애 (2016). 혐오 표현과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 『미디어이슈』, 2권 7호, 1~14.
- 박용숙 (2014).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권, 467~509.
- 박혜림 (2015, 12, 22). “여자는 안돼” “남자는 잘못됐다”... 댓글창 이성혐오 전쟁. <헤럴드경제>.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2000951>
- 안상욱 (2011).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세혁 (2009).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권 3호, 631~675.
- 유홍식 (2010). 악성 댓글에 대한 제3자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238~278.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호, 33~56.
- 이수민 (2013). 「온라인 허위 루머와 제3자 효과: 미디어 이용, 시각적 편향, 미디어 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은·이원지 (2012). 제삼자 지각 가설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322~349.

정일권 (2006). 지각 대상자에 따른 제3자 효과 지각 변화의 원인.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362~393.

조소희 (2015, 7, 4). 왜 2030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나. <부산일보>. URL: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704000030>

한윤형 (2013). 왜 한국 남성은 한국여성들에게 분노하는가: 여성 혐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문학/과학』, 76호, 185~201.

上野 千鶴子 (2010). 女ぎらい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1st ed.). 나일등 (역)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Adams, T. M., & Fuller, D. B. (2006). The words have changed but the ideology remains the same: misogynic lyrics in rap music. *Journal of Black Studies*, 36, 938~957.

Choi, J., Yang, M., & Chang, J. J. (2009). Elaboration of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the roles of involvement, media skepticism, congruency of perceived media influence, and perceived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36, 54~75.

Chung, S., & Moon, S. I. (2016). Is the third-person effect real? A critical examination of rationales, testing methods, and previous findings of the third-person effect on censorship attitud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2, 312~337.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Douglas, K. M., & Sutton, R. M. (2004). Right about others, wrong about ourselves? Actual and perceived self-other differences in resistance to persua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585~603.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Fisher, W. A., & Grenier, G. (1994). Violent pornography, antiwoman thoughts, and antiwoman acts: In search of reliable effec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23~38.

Flock, E. (2013, 5, 8). U.S. could face more attacks like Boston, report on digital terror suggests. <U.S. News & World Report>. URL:

- <http://www.usnews.com/news/blogs/washington-whispers/2013/05/08/us-could-face-more-attacks-like-boston-report-on-digital-terror-suggests>
- Gandy, O. H. (1994). The information of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The National Forum*, 74, 24~28.
- Greenberg, B. S., Siemicki, M., Dorfman, S., Heeter, C., & Stanley, C. (1993). Sex content in R-rated films viewed by adolescents. In B. S. Greenberg, J. D. Brown & N. L. Buerkel-Rothfuss (Eds.), *Media, sex and the adolescent* (pp. 45~58). Cresskill, NJ: Hampton Press.
- Gunther, A. C. (1995). Overrating the x-rat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 27~38.
- Gunther, A. C. (1998). The persuasive press inference: Effects of mass media on perceived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486~504.
- Gunther, A. C., Christen, C. T., Liebhart, J. L., & Chia, S. C. Y. (2001). Congenial public, contrary press, and biased estimates of the climate of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5, 295~320.
- Gunther, A. C., Edgerly, S., Akin, H., & Broesch, J. A. (2012). Partisan evaluation of partisan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9, 439~457.
- Gunther, A. C., & Liebhart, J. L. (2006). Broad reach or biased source? Decomposing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6, 449~466.
- Gunther, A. C., & Thorson, E. (1992).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 574~596.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ffner, C., Buchanan, M., Anderson, J. D., Hubbs, L.A., Kamigaki, S. K., Kowalczyk, L., & Silberg, K. J. (1999). Support for censorship of television violence: The role of the third-person effect and news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26, 726~742.
- Lee, E.-J. (2012). That's not the way it is: How user-generated comments on the news affect perceived media bia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8, 32~45.
- Leets, L., & Giles, H. (1997). Words as weapons: When do they wound?

- Investigations of harmful speech.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4, 260~301.
- Levmore, S., & Nussbaum, M. C. (2012). *The Offensive Internet* (2nd ed.). 김상현 (역) (2012). 『불편한 인터넷』. 서울: 에이콘.
- Lo, V., & Wei, R. (2002). Third-person effect, gender an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6, 13~33.
- Malamuth, N. M. (1996). Sexually explicit media, gender differences, and evolutionary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46, 8~31.
- McLean, J., & Maalsen, S. (2013). Destroying the joint and dying of shame? A geography of revitalised feminism in social media and beyond. *Geographical Research*, 51, 243~256.
- McLeod, D. M., Detenber, B., & Eveland, W. P. (2001). Behind the third-person effect: Differentiating perceptual processes for self and other. *Journal of Communication*, 51, 678~695.
- McLeod, D. M., Eveland, W. P., & Nathanson, A. I. (1997).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 153~174.
- Perloff, R. M. (2015). A three-decade retrospective on the hostile media effec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8, 701~729.
- Perloff, R. M. (2002). The third-person effect.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489~506). Mahwah, NJ: Erlbaum..
-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A.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Advances in persuasion* (vol. 13, pp. 173~212). Greenwich, CT: Ablex.
- Reid, S. A., & Hogg, M. A. (2005).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third-person effe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1, 129~161.
- Salwen, M. B. (1998).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and support for censorship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 259~285.
- Schweisberger, V., Billinson, J., & Chock, T. M. (2014). Facebook,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 403~413.
- Shrum, L. J. (2004). Magnitude of effects of television viewing on social perceptions vary as a function of data collection method: Implications

- for psychological processes. In B. E. Kahn & M. F. Luce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1, pp. 511~513). Valdosta, GA: Associations for Consumer Research.
- Shrum, L. J. (2009). Media consumption and perceptions of social reality: Effects and underlying processes.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50~73). New York: Psychology Press.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In H. Tajfel (Ed.), *European Monographs in Social Psychology* (pp. 61~76).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2010).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In H. Tajfel (Ed.),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vol. 7, pp. 15~4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0).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U.N. Doc. A/55/342.
- Wu, W., & Koo, S. H. (2001). Perceived effects of sexually explicit internet context: The third-person effect in Singapor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 260~274.

최초투고일 06월 27일

논문수정일 07월 29일

게재확정일 08월 05일

A b s t r a c t

How Sex and Exposure Frequency Affect Support for the Censorship of Misogynistic User Comments

Differential Thresholds of Misogyny and Perceived Influence on Others

Eun-Ju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mo Park

MA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web-based survey ($N = 323$) examined how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 censorship of misogynistic user comments on the Internet vary as a function of their sex and previous exposure to such comments. In so doing, we focused on differential thresholds of misogyny and perceived influence on others as immediate predictors of censorship attitudes.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four different misogynistic comments in random order and indicated (a) how misogynistic they perceived each comment to be, (b) how likely they believed each comment would negatively influence their own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women as well as those of others (others vs. other men vs. other women, depending on the condition), and (c) how strongly they would support the government censorship of misogynistic user comments. First, when exposed to identical comments, women rated them to be more misogynistic than men did, showing a lower threshold of misogyny. Second, women showed varying degrees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 (i.e., the tendency to perceive greater media influence on others than on self), depending on the type of others (other men > others > other women), but men did not. Third, higher perceived misogyny of the given comments (i.e., lower threshold) and greater perceived influence on other men each predicted stronger support for the government censorship, after controlling for sex and perceived influence

on self. Lastly, greater previous exposure to misogynistic comments led to stronger support for the censorship, but this effect was mediated by perceived influence of the comments on others. By contrast, exposure frequenc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misogyny of the given comments, thereby challenging the desensitization hypothesis.

KEYWORDS desensitization hypothesis • media censorship • misogyny • social identity • the third-person effect